

2025
SEPTEMBER

10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CONTENTS

01 COVER

제63회 종합학술대회
성료

02 FOCUS

임상병리사 관련 법률의
변천사

03 KAMT NEWS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행정예고

04 KAMT2025

사진으로 보는
종합학술대회

08 INTERVIEW

종합학술대회 성료
남상열 대회장 인터뷰

제513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연구를 위한 모든 것
Total Lab Solution for you
Hyunil Lab Mate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기자 황래환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성료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이광우)가 9월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JECO)에서 개최한 2025년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대회장 남상열)를 성황리에 마쳤다.

'정확한 진단과 미래보건의료체계의 중심은 임상병리사'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종합학술대회에는 일본, 대만, 태국 등 해외 임상병리사 100여 명을 포함한 3,000여 명의 임상병리사가 참석해 국제적 학술 교류와 산업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20일 진행된 개회식에는 요코치 츠네히로 일본임상위생검사기사협회(JAMT), 라이 썬 형 중화민국의사검정사공회(TAMT), 피탁 산타니란 태국임상병리사협회(AMTT) 등 해외 임상병리사 단체 대표를 비롯해 전제진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상임부의장과 신명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및 진단검사의학재단 이사장, 김정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등 국내 보건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영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울산시회장, 윤대영 대한안경사협회 울산시회장, 김해정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울산시회장, 류은금 울산광역시 간호사회장 등 울산 보건의료 직역단체 대표와 배창희 한국로슈진단(주) 상무, 박영배 지멘스헬시니어스(주) 본부장, 김용우 (재)서울의과학연구소 전무, 염석재 (재)씨젠의료재단 부문장, 강우봉 GC녹십자의료재단 상무 등 후원사를 비롯한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회식은 이도왕 조직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남상열 대회장의 개회사, 이광우 협회장의 환영사가 진행됐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영상 축사를 전했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 축사(김한규 기획부회장 대독)를 통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장종태·김윤·서미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영상 축사로, 김기현 울산 남구를 국회의원은 축전으로 종합학술대회를 축하했다. 또한, 전제진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상임부의장, 신명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및 진단검사의학재단 이사장, 김정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종합학술대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후 제주에서 개최되는 2026년 제64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의 대회장이자 제주특별자치도

치도임상병리사회 회장인 정무상 회장이 차기 종합학술대회 소개를 진행했다.

이번 종합학술대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협회장 공로상 채희영(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 ▲협회장 학술상 이동섭(혜전대학교) ▲학술 공로상 박준모(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유광철(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문성식(영남대학교병원), 서경아(인천광역시의료원), 김상훈(강북삼성병원) ▲학술 장려상 김도영(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이금희(둔산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원), 박미성(GC녹십자아이메드 강남의원), 송승현(김광석외과의원), 배지현(대항병원), 최용진((사)대한산업보건협회부설 전남의원) ▲우수논문상 김성현(서울아산병원), 정다솜(서울대학교병원), 지우현(삼성서울병원), 현순철(삼성서울병원), 윤대위(중원대학교), 이기종(연세대학교), 서해경(신한대학교) ▲우수심사자상 손영준(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정현(경북대학교), 심인숙(동남보건대학교), 표상신(신한대학교), 심우섭(가톨릭대학교), 서충원(동의과학대학교) ▲특별공로상 전승환(수원과학대학교) ▲공로상 박정연(진주보건대학교), 박준영(연세대학교 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우수포스터상 노길우 외(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서대의 외(전북대학교병원), 임용 외(동의대학교), 성승현(유투의료재단), 김유진 외((사)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의원), 김현진 외(유투의료재단), 유원화 외(대구보건대학교) ▲한일교류공로자상 Miyajima Yoshifumi ▲국제포스터상 Ching Tzu Yen, Go Kobayashi, Shuhei Ishii, Hidekazu Ishida, Miyaka Umemori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상 정지은((주)하이로닉) ▲감사장 김수진, 박해찬((주)다루소프트)이 수여됐다.

이번 종합학술대회에는 국내외 포스터 총 105편이 제출됐고 총 71편의 심포지엄 발표와 강연이 진행되며 학술의 장을 풍성하게 했다. 일본, 대만, 태국 등 해외 협회와의 대표단 회의를 통해 국제적 교류도 진행했다.

또한 이번 종합학술대회에는 한국로슈진단(주), 지멘스헬시니어스(주), 한국백크만쿨터(주)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임상병리 관련 50여 개 기업이 최신 검사장비를 전시하는 부스를 운영하며 종합학술대회를 학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장을 선보였다.

종합학술대회 모든 학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진행된 폐회식에서는 이도왕 조직위원장의 결과보고와 이광우 협회장의 총평이 진행됐다. 이광우 협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미래 보건의료체계에서의 역할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제 교류와 학술 발전을 통한 임상병리사의 위상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제64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는 2026년 9월 18일(금)부터 19일(토)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963년 7월 의료보조원법에서 2025년 10월 간호법에서의 업무영역 확보까지”

-임상병리사 관련 법률의 변천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 김기유

“과거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미 일어난 일은 대개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는 돌돌 말아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시킨 과거일 뿐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과거이다.”

- 월 듀란트 -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올해로 63년을 맞이했다. 2024년 3월 이광우 회장의 28대 집행부는 임기를 시작했고, 2025년 9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국제적 학술교류와 산업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이광우 회장은 개막식 후 ‘창립에서 미래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60년 역사’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는데, 기조강연 서두에 「E.H 역사란 무엇인가」 책을 인용했다.

「E.H 역사란 무엇인가」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는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택과 해석, 그리고 성찰을 통해 역사는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63년을 넘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협회 63년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역사를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는 사실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근본적인 물음과 맞닿아 있다.

1954년 초 한국 사회는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보건 의료 체계의 기틀을 다져나가던 시기였다. 감염병과 만성질환이 동시에 위협하던 그 시대,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은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당시 의료현장에서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세균 배양 등 기본적인 임상검사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전문 인력의 부재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한계를 가중시켰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임상병리라는 새로운 분야가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병의 진단과 치료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 즉 데이터를 제공하는 임상검사는 더 이상 단순한 보조업무가 아닌, 독립된 전문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료기사(Medical Technologist)’라는 직역이 확립되어 있었고, 한국도 이에 준하는 전문직 제도의 도입이 시급했다.

1962년 10월 14일 발기인 모임에서 결정한 대로 삼청동 보건원에서 전국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한임상검사기술협회(Korean Medical Technology Association, KMTA)의 창립과 함께 63년 역사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과연 63년 협회사에서 임상병리사 관련 법률은 어떻게 변천해 왔을까?

1962년 당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에서는 입법과정에서 「의료기사법」이 아닌 「임상병리기사법」, 「진료엑스선법」 등과 같은 단독법을 추진했으나 관계당국과 유관단체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1963년 「의료보조원법」이 공포되었다.

돌이켜 볼 때, 입법과정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몇 가지 정책적 판단 실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의료법에서의 의사와 간호원 등의 직종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위생검사기사자격을 참고해 스승 사(師)와 1~3급을 구분한 「임상병리기사법」으로 추진했다는 점, 고등교육인 대학 정규과정에서 인력을 배출해야 직업·교육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간과한 점과 처음부터 「의료기사법」으로 준비해서 국제노동기구 1958년판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58)의 직업코드를 제공해서 관계 당국과 유관단체 등을 통해 설득하고 입법 작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1963년 「의료보조원법」에서 의료보조원의 종별은 임상병리사, 엑스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위생시험사이며 1966년 간호보조원, 1967년 위생사, 치과위생사가 추가되었다. 이후 간호보조원은 1973년 제정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반영되었으며 위생사, 위생시험사는 1975년 제정된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을 거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이관되었다. 의료기사의 정의에 대한 업무행위는 1963년 「의료보조원법」법에 ‘의사, 치과의사의 감독(監督)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의 보조(補助)에 관한 업무를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었다. 그 후 1973년 「의료기사법」에서 ‘의사, 치과의사의 지시(指示) 및 감독(監督)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변경되었고, 1982년 「의료기사법」개정에서 현재까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指導)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의료보조원법이 의사, 치과의사의 지시(指示) 및 감독(監督)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한다고 하는 의료기사법이 1973년 2월 16일에 제정되었고, 1982년 4월 2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그동안 문제시돼왔던 의료기사법 1조 ‘의사의 지시 감독’ 조항이 ‘의사의 지도’로 개정되었다.

의사의 지시 감독 조항이 의사의 지도로 개정되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지시는 무엇을 하도록 분명히 명령하는 것이고, 지도는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신분보장에 대한 오랜 숙원사업이 협회의 계속된 노력으로 의료기사법이 단독법으로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시나 지도는 임상병리사라는 직무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반영되지 않는 진료보조라는 의미가 강하기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종속적인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8월8일 의료기사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생리학적 검사를 생리학적 검사(심전도, 뇌파, 심폐기능, 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검사)로 개정되었지만 검사실 현실은 전국 1백여 병상 이상의 200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생리학적 검사의 직종별 검사현황을 보면 각종 생리학적 검사 취급자는 임상병리사가 18.8%, 간호사(정규, 보조포함)가 29.4%, 무면허자가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27.2%, 기타가 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 이후에 협회에서는 생리학적검사에 대한 이론과 실습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1989년 이전의 임상병리사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에 정규과목을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무면허자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적인 끊임없는 제안을 통해 현실의 생리학적인 검사가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임을 지키려고 적극적인 교육치중과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협 산하 전문학회가 기존에 검사를 실행했던 무자격자라도 수년 동안 검사업무를 수행해왔기에 임상병리사보다 업무파악을 잘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해박하고 임상 의하고도 소통이 잘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의료기사제도 신설을 운운하며 생리학적 검사가 임상병리사 업무범위에 규정된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었기에 그 당시 협회에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다. 협회는 국회와 연관이 있는 경기도회 김덕중 회장을 중심으로 대응팀을 만들어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는 무자격자들에게 생리학적인 검사만을 수행한다는 한시적인 제도를 만들어 임상병리사 국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 구제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그 당시 기존의 검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면서 우리의 업무영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의료기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생리학검사는 것이 임상병리사들이 업무영역이라는 회원들의 공감대를 형성되지 않았을 때 미래의 비전을 보고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김덕중 경기도회장과 이론적 뒷받침을 해준 생리학사학회 초대 학회장인 박정오 교수(울지대학교) 그리고 그 당시 실무진으로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뛰었던 경기도회 김기유 총무이사(울지대학교)의 노력으로 지금 임상병리사들의 생리학적 검사의 영역의 기반을 이루었다고 본다.

(다음 호에 계속)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행정예고...업무범위 명확해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0월 1일(수) 행정예고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광우 협회장은 “이번 행정예고는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간호법 1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간호사의 업무에서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문구에 부합한다”며 “기존 간호법과 상충되지 않게 정상화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예고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43개 세부행위 목록은 고시에 규정했다.

특히 ‘객관적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지원’ 문구가 ‘직장 수지 검사(진단목적은 불가)’로 수정되고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 · 보조지원’ 문구가 제외됐다. 또한 입법예고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 43개 이외에 추가업무 신고 시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에서 수행불가로 명시된 행위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업무는 추가 수행 행위로 신고할 수 없다. 그동안 간호사 지원업무 과정에서 수행된 혈액 채혈 및 검사물 채취, 응급상황 시 검사 업무 수행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게 됐다.

협회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의 주제 발표 내용 중 04. 업무범위_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 과 관련해 간호법 제12조 제3항을 관련 근거로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 또는 문구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객관적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지원’ 문구의 경우 검사 지원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범위 및 한계가 포괄적이고 모호했으며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 · 보조지원’ 문구는 임상병리사가 수술이 시행되는 동안 신경경로, 뇌혈류, 뇌기능 정도를 추적하여 감시(monitoring)하거나 뇌 또는 신경 기능을 평가(mapping)하여 수술로 신경계 손상 또는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는 신경검사장비 지원을 하기에 문구 수정을 요청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각 단체 면담 · 간담회 및 의료기관 종사자 간담회와 각 쟁점 사항에 대해 각 단체별 추가 의견수렴 및 규칙(안) 정비를 통해 마련됐다.

참고1 진료지원 행위목록 고시(안)

공청회 이후 정비 (안)	세부행위 (총 43개)
1.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관련	가. 환자 평가 및 모니터링 지원 1)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2) 환자의 마취 과정 모니터링 나. 기록 및 처방 지원 1)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2) 검사·판독 및 협진·천원·의뢰 초안 작성 3)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4)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5)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의 처방 초안 작성
2. 시술 및 처치 관련	가. 의료용 관(Tube, Catheter) 관리 1) 일반 관리 • 비위관(L-Tube, NG-Tube)등의 삽입·교체 • 의료용 관(Tube, Catheter) 및 관련 기구의 세척·제거 * 누공삽관된 배액·위루관, 방광루관, J-P drain, Hemovac 등 2) 심화 관리 • 기관절개관(T-Tube) 제거 • 의료용 관(Tube, Catheter) 및 관련 기구의 교체 • 중심정맥관(C-line, PICC) 조영제 투여 • 중심정맥관(C-line, PICC) 제거 나. 상처·장루·욕창 일반 관리 1) 복합 드레싱 (* Catheter, Tube, 수술부위 드레싱 등) 2) 위루·장루·방광루 등의 드레싱 3) 3단계 욕창 드레싱 4) 흡인 드레싱 다. 프로토콜 하 호흡치료 1) 호흡치료 (respiratory therapy) (*호흡 재활치료 제외) 2) 인공호흡기 설정 (* 압력조절, 산소 농도조절, 양압 조절 등)
3.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라. 침습적 시술 및 처치 1) 동맥혈 전자 2) 말초동맥관(A-line) 삽입 3) 피부 봉합(Skin Suture)·매듭(Tie) 및 봉합사 제거(Stitch Out) 4) 피하조직의 절개(Incision) 및 배농(Drainage) 마. 기타 시술 및 처치 1) 외상 후 석고붕대 (Cast, 톱깍스) 2) 외상 후 부목 (Splint, 반깍스) 3) 방광 내 BCG 주입 4) 전립선 마사지 5) 치형수지검사 (*출혈 등 객관적 사실확인 목적, 진단목적 불가) 6) 분만과정 중 내진 7) 개흉마사지 보조 8) 프로토콜 하 체외순환 장비 운영 지원 바. 전문적 시술 및 처치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 한정) 1) 골수전자 2) 복수전자 3) 기관절개관(T-Tube) 교체 4) 4단계 욕창 드레싱
	가. 수술 지원 1)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2) 수술 과정의 조영제 투입 등 수술 지원 3) 수술 관련 비침습적 지원 4)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 나. 체외순환 1)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2) 체외순환 보조장비(ECMO, VAD, IABP 등) 운영 준비 및 관리 3) 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 및 부품 등 관리 4) 각종 장기 이식(심장, 폐, 간 등) 장기보존액 관리 및 체외순환 운영

제511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9월 4일(목) 오후 6시 30분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51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19명 중 16명이 참석해 성원됐고 부장 26명 중 17명, 총원 45명 중 33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후원사 간담회 및 전시부스 위치 추천식 개최 결과 보고, 2025년 제512차 상임이사회 개최 안내, 2025년 제186차 정기이사회 개최 안내, KAMT2025 울산 관련 안내사항 ▲재무부 교부금 지급, 2025년 씨젠의료재단 협회비 단체 납부, 2025년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2025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여의도 총무빌딩 501호 임대차 계약 보고, 복지물 오픈 및 LG CNS 복지물 포인트 지급, 회의 식비 초과 내역 보고 ▲학술부 제7차 학술부 회의, 제63회 종합학술대회 학술상 심의위원회 회의, KJCLS 우수 원고 영문 번역·게재 지원사업 진행, 포스터 초록 마감, 포스터 키오스크 운영 안내 ▲교육부 제5차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인증 TF 회의(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전문임상병리사 자격시험 운영 회의, 임상병리사 현장(임상)실습 법제화 관련 대학별 공문발송 ▲국제부 제63회 종합학술대회 국가별 대표단회의 안건 송부 완료의 건, 2025 교차트레이닝 참가자 선발의 건, 2025년 제2차 한일교류공로 자회의 회의 내용 보고의 건, 역사관 JAMT면 인테리어 작업 완료 ▲공보부 온라인 병리협보 8월호 발행의 건,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촬영 용역 및 영상 제작의 건, 제64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홍보 동영상 제작 완료 보고의 건,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노래 경연 프로그램 신청 현황의 건, SNS 홍보의 건, 축사 작성의 건, 회원고충처리 현황 보고의 건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의 건, 전산 인프라 및 전산시스템의 고도화의 건, AI상담센터 운영의 건, 전산 장비 구입 보고의 건,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사전등록 안내 문자 발송의 건 ▲기획정책부 국회 입법박람회 참여의 건, 국회 토론회 개최의 건 ▲대외협력부 2025년 제63차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전시·광고 현황, 2025년 제63차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전시부스 배치도 ▲중소병의원부 중소병의원발전소위원회 실무자료개발팀 4차 회의, 중소병의원발전소위원회 6차 회의, 공익신고위원회 7차 회의 ▲보험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의 건, 제7차 보험부 회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안건 심의, 의결에서는 ‘임상병리사 매거진’ 제작의 건, 2025년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KAMT2025) 포상대상자 명단 인준 요청의 건이 진행됐다. 안건은 모두 통과됐고 제511차 상임이사회는 폐회했다.

사진으로 보는 종합학술대회

전경

포스터 전시



전시부스



개회식



테이프커팅식



조직위원장 개회선언



대회장 개회사



협회장 환영사



우원식 국회의장 축사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축사
(김한규 부회장 대독)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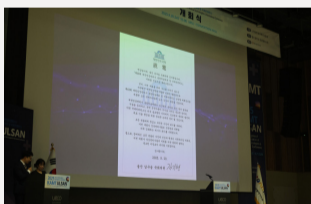
장종태 국회의원 축사



김윤 국회의원 축사



서미화 국회의원 축사



김기현 국회의원 축전



김두겸 울산시장 축사



전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축사



요코치 츠네히로
JAMT 회장 축사



라이 쉐인 형
TAMT 회장 축사



피탁 산타니란
AMTT 회장 축사



신명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진단검사의학재단 이사장 축사



김정민 대한치과기공사회장
축사



차기 학술대회소개
정무상 대회장

학술프로그램



Keynote Speech



Plenary Lecture



생리검사 핸드온 심포지엄



정책 심포지엄



주제 심포지엄

사진으로 보는 종합학술대회

종합학술대회 수상자



협회장 공로상



협회장 학술상



국제포스터상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상



한일교류공로자상



우수논문상·우수심사자상
특별공로상·공로상



학술 공로상



문서김



학술 장려상



우수포스터상



감사장

국제 컨퍼런스



한일대표단회의



한대대표단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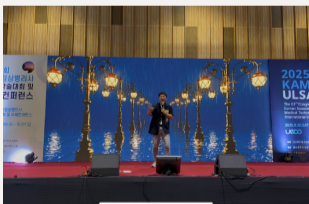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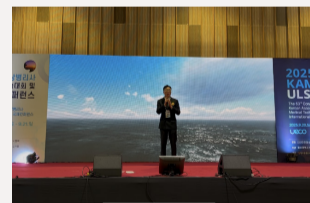


한태대표단회의



한일교류공로자회의

미팅페스티벌



폐회식



결과보고



총평



경품추첨식 1등



경품추첨식 2등



조직위원회 단체사진



제186차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9월 27일(토) 오후 2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제186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이사회에는 총원 50명 중 34명(성원, 감사 1명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관련 보고, 제185차 정기이사회 및 2025년 행정실무워크숍 개최 완료에 따른 보고, 윤리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보고, 사무국 직원 관련 보고, 농협아너스 MOU 체결 관련, 시도회·분과학회·산하단체장 워크숍 개최 안내, 2027년 종합학술대회 개최지 선정 관련, 제16기 임상병리사 시험위원회 구성의 건, 대한임상병리사협회&YBM연수원 상호협력 위한 파트너십 제휴 진행,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 업무협약 체결 보고, 2025년 시도회, 분과학회, 산하단체 실무자 교육 개최 보고, 협회 여의도 사무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진행 보고, 2025년 제187차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 개최 안내 ▲재무부 교부금 지급, 2025년 1기 예정 부가세 납부, 감염안전관리 임상병리사회 예산 지급, 2025년 특수 및 진폐건강진단 진폐정도관리 폐기능검사·판정교육 대행 용역 선금 지급, 2026년 제64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제주도회 1차 홍보지원금 지급, 2025년 1기 확정 부가세 납부, 정기예금(임평원기금) 재예치, 2025년 재산세(건축물분) 납부, 2025년 상반기 온라인 보수교육 교부금 정산, 시도분과 사용 중단 및 사용 목적 확인 불가 법인계좌 해지, 서울시회 회원문화체험 행사 찬조금 지급, 2025년 씨젠의료재단 협회비 단체 납부, 2025년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2025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여의도 층무빌딩 501호 임대차 계약 보고, 복지물 오픈 및 LG CNS 복지물 포인트 지급 ▲학술부 2025년 학술부 회의 일정 및 주요 사항, 제63회 울산 종합학술대회 진행의 건, 연구정책과제, 편집위원회 보고, 2025 학술부 하반기 사업계획 ▲교육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사무국 회의, 제2차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회의, 제3차 세포전문병리사 인증 TF 회의, 제1차 보수교육위원회 회의, 제3차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회의, 제2차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운영위원회 회의, 제4차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인증 TF 회의, 분과학회 온라인 보수교육 강사 추천 및 온라인 보수교육 지원금 지급의 건, 2025년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워크숍, 제3차 임상병리학과 학제일원화 TF 회의, 제3차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운영위원회 회의, 온라인 보수교육 촬영 및 업로드 보고의 건, 임상병리학과 학제일원화 TF 위원 변경의 건,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제1차 정기이사회, 온라인 보수교육 촬영 계약 내용 변경의 건, 2025년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사전등록 오픈의 건, 국군의무학교 협회비 납부 독려의 건, 전자출결 물품 지원 사업 종료 안내 및 관련 협조 요청, 제5차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인증 TF 회의(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전문임상병리사 자격 인정시험 운영 회의, 임상병리사 현장(임상)실습 법제화 관련 대학별 공문발송 ▲국제부 제74회 일본의학검사학회 참가의 건, 제47회

태국학회 참가 보고의 건, AAMLS 웹사이트 각 회원국 소식지 전달의 건, IFBLS Scientific Network of Experts 2025 관련 지원자 모집 공고 알림 건, JAMT 단기트레이닝 참가자 선정 완료의 건, 2025년 교차트레이닝 관련 참가자 모집 및 선정 완료의 건, 2025년 제2차 한일교류공로 자회의 회의 내용 보고의 건, 역사관 JAMT면 인테리어 작업 완료 ▲공보부 온라인 병리협보 발행의 건, 매경 에이지테크 포럼 협찬 및 참가의 건, 오진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 병리협보 인터뷰의 건, 전국 임상병리(학)과 학생 이벤트 기획 및 경품 지급의 건, 서울 및 수도권 광역전철 영상광고 대금 지급의 건, 제64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홍보 동영상 제작의 건,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촬영 용역 및 영상 제작의 건, SNS 홍보 진행의 건, 보도자료 및 축사 작성의 건, 회원고충처리 현황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의 건, 전산 인프라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의 건, AI상담센터 운영의 건, 전산 장비 구입 보고의 건,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사전등록 및 문자발송 보고, 월별 엠포플러스(문자메시지) 사용내역 보고 ▲기획정책부 2025 메타버스 엑스포 참가의 건, 2025 메타버스 엑스포 기념품 제작의 건, KMI 한국의학연구소 업무협약의 건, 국회 입법박람회 참여의 건, 국회 토론회 개최의 건 ▲법제부 법제위원회 위원 추가 보고 ▲정무부 장종태(대전 서구갑)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임상병리사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국회간담회),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 찬조금 지급의 건,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더불어민주당 후보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긴급 점검회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정책협약식(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참석의 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직능단체대표단 간담회 참석의 건 ▲대외협력부 2025년 제63차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전시·광고 현황, 2025년 제63차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전시부스 배치도 ▲중소병의원부 공익신고위원회 회의,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회의, 중소병의원부 회의, 중소병의원 발전소위원회 실무자료개발팀 4차 회의, 2025년 공단전문강사 워크숍 진행, 2025년 16개 시도회 대표위원 상반기 워크숍 진행의 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및 관리 방안을 위한 협의체 1차 회의 진행의 건 ▲보험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의 건, 제3차 보험부 회의, 제4차 보험부 회의(제3차 채혈료산정 소위원회), 제5차 보험부 회의, 제6차 보험부 회의, 공보부 협조의 건, 제7차 보험부 회의가 보고됐다.

이러한 안건 심의, 의결에서는 ‘임상병리사 매거진’ 제작의 건을 진행했다. 안건은 통과됐고 제186차 정기이사회는 폐회했다.

중앙회 동정

9월 4일 제511차 상임이사회

9월 5일 국제의전분과 종합학술대회 점검 회의

9월 11일 현장(임상)실습 법제화 회의

9월 12일 국회 정책토론회

9월 20일 - 21일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9월 23일 국회 입법박람회 참가

9월 27일 제186차 정기이사회

정보통신부-전산업체 회의

제6차 전산시스템 재구축 TF 회의

9월 30일 회계 프로그램 계약 간담회



AI시대 검사전문가 임상병리사의 역할 'POCT(현장검사) 돌봄통합 고도화' 국회토론회 성료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9월 1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AI 시대 검사전문가 임상병리사의 역할 : POCT(현장검사) 돌봄통합 고도화' 국회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으며, 박희열 기획정책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왼쪽부터) 남인순, 서미화 국회의원

영상으로 개회사를 전한 남인순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임상병리사 방문검사제도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자리"라며 "돌봄통합지원법을 개정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돌봄통합지원사업에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서미화 의원은 "오늘 병원 검진 때에도 임상병리사분께서 전문적인 기술로 아프지 않게 채혈을 해주셨다"며 "전문인력인 임상병리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포함돼 POCT가 도입되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오늘 논의되는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우 협회장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문검사 사업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노인 및 만성질환자의 관리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이러한 임상병리사의 방문검사가 제도화된다면 의료의 서비스는 향상되고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우 협회장

(재)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 직역들 중에서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임상병리사의 참여 의사가 제일 높은 것 같다"며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문 진료, 방문 재활, 방문 복지 등 영역의 하나로 임상병리사가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격려했다.



김용익 이사장

이후 참석자들은 '방문검사 전문가 임상병리사가 함께합니다', '지역사회 돌봄으로 함께하는 임상병리사' 문구의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피켓 캠페인

김한규 기획부회장

김한규 기획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AI 시대의 POCT 확산은 의료 발전의 필수 흐름이지만, 국민 신뢰와 환자 안전을 위해 임상병리사 중심의 안전 책임모형이 필요하다"며 "임상병리사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품질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 김대는 경북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교수는 POCT는 응급·만성 질환·감염병 대응 등 돌봄 의료에서 필수적이라며 POCT 관리·검증·품질관리의 주체인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 조경애 (재)돌봄과 미래 사무처장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임상병리사의 방문 검사 서비스를 법제화해 돌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남 前 국회의장실 정책기획비서관은 입법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했고 이정수 중앙N남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의사 지도·원격진료 문제 등 의료법과의 충돌 가능성과 인력 보완·시장 확대의 관점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선 헬스경향 기자는 임상병리사의 역할은 필수적이지만 사회적 인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며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사무관은 "2026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전달 체계 마련·서비스 연계·확대 단계를 준비 중으로, 임상병리사의 방문 검사에 대한 역할은 통합지원단의 정책 방향과 크게 일치한다"며 "다만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여러 부처 협의와 심사로 어려움이 있고, 원활한 입법과 제도 반영을 위해서는 면밀한 자료 준비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양성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책연구기획센터 교수는 토론회 후 총평에서 "오늘 토론회는 학계, 현장, 언론, 정부의 다양한 관심과 관심이 모인 소중한 자리였다"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임상병리사와 같은 전문 직종의 참여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돌봄이 잘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참가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9월 23일(화), 24일(수)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했다.

개막식에는 협회를 대표하여 박희열 기획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개막식은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정당대표, 국회 소속 기관장, 시민단체 대표 등이 함께 자리하여 국민 참여형 입법의 새로운 방향을 알리는 자리로 진행됐다.

협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불평등 없는 현장즉시검사(POCT): 국민건강 안전지킴이 대한임상병리사협회'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며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통합돌봄 체계 강화 ▲AI 시대 검사전문가로서의 임상병리사 역할 확대라는 두 가지 전시 주제를 소개했다.



격려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부스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손끝 채혈을 통한 혈당·HbA1c 신속 측정, AI 기반 안저검사 등을 통해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현장검사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알렸다. 행사 기간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

스를 찾아 격려했고 곽상언·장종태·전진숙·김윤 국회의원은 POCT 검사를 체험했다.

아울러 협회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임상병리사 인지도 및 업무영역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역할 확대 필요성 등과 관련된 국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시계방향부터) 곽상언, 장종태, 전진숙, 김윤 국회의원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성공적 개최...남상열 대회장 인터뷰

지난 9월, 울산에서 열린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울산시회가 단독 개최한 전국 규모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대회를 이끈 남상열 대회장에게 준비 과정과 소감,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



Q. 이번 종합학술대회를 무사히 마치셨는데, 대회장으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감은 무엇인가요?

사실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긴장도 많았는데,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나니 가장 먼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주신 연자 선생님들,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후배님들, 그리고 묵묵히 애써준 동료들에게 마음 깊이 고맙습니다. 혼자서 아닌 함께한 자리였기에 더욱 뜻깊었습니다.

특히 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단독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 임상병리사를 대표해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만남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Q. 대회장으로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은 무엇이었는지요?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소통과 참여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임상병리사들이 서로 지식을 나누고, 선후배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핸드온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울산은 중소병·의원인 많은 지역이라, 혼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습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는 심장·뇌혈류 초음파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실습과 결과 판독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싶습니다.

Q. 이번 학술대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임상병리사와 연구자들이 지식과 경험을 나누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 현장의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학문과 실무가 연결되는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연 후 열정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모습, 그리고 후배들이 선배 발표를 경청하며 눈빛을 반짝이던 장면이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학문 교류를 넘어, 우리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Q. 임상병리사로서 걸어온 길과 대회장으로서의 경험은 어떻게 맞닿아 있다고 느끼셨나요?

임상병리사로서 작은 검사 하나에도 세심함과 정확성을 기해왔던 태도가

이번 대회 준비와 닮아 있었습니다. 작은 부분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한 노력이 결국 학술대회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대회장으로서 책임과 비전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 뜻깊었습니다. 동료와 함께 성장하고 후배들에게 더 나은 길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역할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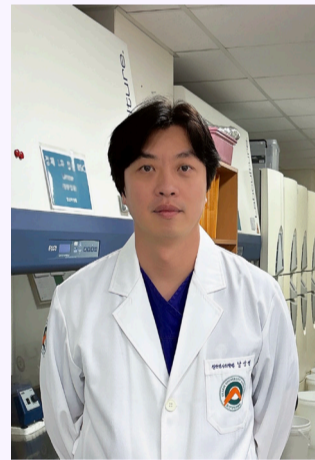
Q.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울산시회에 생긴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울산에서 처음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다 보니 낯설고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중앙회와의 소통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울산시와 중앙회가 한층 가까워졌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종합학술대회는 전국 회원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Q. 향후 종합학술대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학술대회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연구와 현장, 선배와 후배, 국내와 국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회원들이 단순히 강의와 부스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신기술·권역·실습 등 협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술대회는 전국 임상병리사의 축제이자 배움의 자리이므로,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임상병리사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사랑하는 후배 임상병리사 여러분, 여러분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이자 의료 현장의 빛나는 전문가들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때로는 도전적인 순간이 있겠지만, 그 과정이 곧 여러분을 더 큰 전문가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과 환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고, 동료와 협력하며 스스로의 건강과 삶의 균형도 지켜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걸음이 미래의 의료와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남상열 대회장의 말처럼 이번 제63회 종합학술대회는 단순한 학문 교류를 넘어 임상병리사의 미래와 비전을 함께 그려가는 자리였다.

울산에서의 첫 단독 개최는 새로운 도전이자 성장의 발판이 됐고, 회원 모두의 참여와 소통 속에서 더 큰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

임상병리사를 위한 흥미로운 보험정보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보험부 -

1. 관련근거

-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아목1) 및 제2호러목1)
-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조(급여비용 산정)
-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97호, '25.1.1.시행)

2.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의 의료급여 적용 및 본인 일부부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아목1) 및 제2호러목1)의 국가건강검진 후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진검사란?
(이하 '의료급여 확진검사')

A.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 질환 확진을 위한 경우 또는 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을 의심하는 경우 외래에서 실시하는 추가 진료 및 검사 등을 의미함

Q. 의료급여 확진검사의 대상범위는?

A. 건강보험의 적용 기준*을 준용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위 일반사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타목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Q.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산정 가능한지?

A.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급여비용 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산정 불가함 * 관련 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3조제2항

Q. 의료급여 확진검사 실시가 가능한 의료급여기관은?

A.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결핵의 경우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자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이용이 가능함

Q. 의료급여 확진검사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의뢰하여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은?

A.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료급여 이용절차를 준수하여 의뢰된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면제함
단, 의료급여 이용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Q.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은?

A.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가 의료급여 확진검사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을 면제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확진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확진검사가 가능한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면제함
* 관련 근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Q. 의료급여 확진검사 청구방법은?

A. 국가건강검진 후 의료급여 확진검사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은 건강보험과 동일함
대상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에 대한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란에 특정기호 'F022'*를 기재하여 청구
* F02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
진료 상 필요하여 대상항목 이외의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분리청구함

Q. 본인부담 면제 적용 시기는?

A. 고혈압·당뇨 확진검사: '18년 1월 23일 진료분부터
결핵 확진검사: '21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우울증·조기정신증 진료 및 검사: '25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pr.seegenemedical.com/>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신사옥

**「씨젠메디칼타워」
 Grand Open**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88
 씨젠메디칼타워

“창립 35주년, 「씨젠메디칼타워」에서 새로운 미래를 엽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지하 6층부터 지상 19층까지, 연면적 약 17,000평 규모의 「씨젠메디칼타워」를 준공했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은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의 책임을 다하고, 검사 품질의 완벽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요 특징점

01
 최첨단
 스마트 빌딩 관리
 체계(IBS)

02
 국내 최대 수준
 검사실 자동화
 (TLA)

03
 분자진단
 PCR 검사 전과정
 자동화 플랫폼

04
 융합형 첨단 연구
 환경(분자진단 · 면역
 · 질량분석 · AI)

05
 해외 진출
 의료 네트워크 확대
 (오픈헬스케어㈜)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제3차 보수교육 실시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문선)가 8월 23일(토) 서울대학교 어린이 병원 CJ홀에서 제3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최신 의학 정보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지식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강의는 재치 있는 제목으로 눈길을 끈 「누나(눈아), 내가 지켜줄게 (서울아산병원 안과검사실 김성현)」였다. 이 강의는 눈 건강의 중요성과 정기 검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안과 검사 장비의 역할과 절차를 소개했다. 특히 젊은 층에서도 안구건조증이나 시력 저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어진 두 번째 강의 「미토콘드리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측정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서울대학교병원 중개의학연구소 이태복)」은 체계적인 설명으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세포 에너지의 중심인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기능을 잃는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최신 연구 기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아 회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세 번째 강의 「“스마트워치가 부정맥이라고 알려줬어요”-부정맥의 일상적 전조증상 및 자가진단법(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김대훈 교수)」은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자가 맥박 측정법과 부정맥 의심 시 대처 방법 등을 소개해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강의 「DNA 구조를 통해 알아보는 유전검사 원리(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홍준영)」는 유전자 검사의 과학적 원리를 쉽게 풀어 설명했다. DNA 이중나선 구조부터 PCR, 시퀀싱 기술까지 이어지는 설명은 생소한 유전학 개념을 보다 친숙하게 느끼게 했다.

이번 보수교육을 준비한 서울시회 집행부는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고려해 주제를 선정했는데, 회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지식을 나누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회는 오는 10월 19일(일) 서울시회 회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마음 단합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임상병리사회



서울 서대문 안산서 걷기대회 성료

우천 예보 속에도 뜨거운 참여 열기...건강한 교류의 장 마련



경기도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는 지난 9월 6일(토) 서울 서대문구 안산에서 경기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건강한 삶을 위한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은 비가 멎으며 촉촉해진 안산에 올랐다.

안산은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서울의 숨은 명소로, 잘 정비된 산책로와 메타세쿼이아길, 서울 시내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그리고 오랜 인기 코스인 황토길을 두루 갖추고 있다. 회원들은 함께 담소를 나누며 트레킹을 즐겼고, 뽕기 이벤트와 문기춘 사업부회장의 후원으로 마련된 특별 이벤트 진행 후 행사를 마무리 했다.

경기도회는 앞으로도 회원 간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채로운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



2025년 병리업무 실무자 교육 개최



충청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김창수)는 지난 9월 15일(월) 충북대학교병원 병리과에서 2025년 병리업무 실무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청주 지역 병원의 병리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했으며, 충북대학교병원 병리과 우창곡 교수가 ‘육안검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충북도회는 앞으로 병리업무 실무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병리 검사 관련 최신 지식의 공유와 검사 품질 향상을 통해 병리 업무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치과·안과와 업무협약 체결



울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남상열)는 지난 8월 14일(목) 드림연합치과, 신세계안과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시회 회원들은 구강 건강과 눈 건강 관리에 있어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시회는 앞으로도 회원과 가족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충청남도임상병리사회



충청남도의료기사총연합회와 시각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충청남도임상병리사회(회장 이상훈)가 9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천안 시각장애인 충청남도의료기사총연합회 및 흰돌봉사단과 함께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 충청남도임상병리사회는 공복혈당 검사와 관리 교육을 직접 시행하며 참가자들의 생활 습관 개선과 건강관리 인식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안경사회의 검안·안질환 검사, 물리치료사회의 스트레칭 교육, 방사선사회의 초음파 검사, 치과기공사회의 틀니 점검, 치과위생사회의 구강보건교육, 작업치료사회의 인지기능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며 풍성한 건강서비스가 제공됐다.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산학협력 간담회 첫 통합 개최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원주)는 지난 8월 27일(수) 오후 6시 30분 서면 휴유단에서 2025년 산학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대학 학과장 간담회와 병원 실장 간담회를 확대·통합해 처음으로 시행된 자리로, 병원 관계자 17명, 대학 관계자 10명, 협회 관계자 7명 등 총 34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산학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교육과 실무의 연결 고리 강화 ▲학생 실습 환경 개선 및 상호 협력 방안 논의 ▲실습생의 적응력과 학습 효과 제고를 통한 미래 인력 양성 등을 주요 목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병원 실장과 대학 교수들이 직접 소통하며 ▲실습 병원 별 수용 가능 인원 정보 공유 ▲실습생을 아직 수용하지 않는 병원의 향후 계획 논의 등 학생들의 실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제3회 '해피투게더'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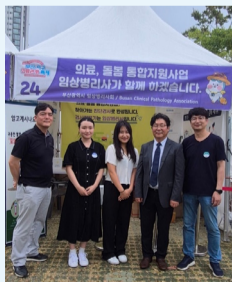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는 지난 9월 10일(수) 제3회 '해피투게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거인병원을 방문하고 인근 척관절 병원에서 근무하는 회원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의 목적은 ▲회원과의 소통을 통한 유대관계 확대 ▲업무 및 새로운 정보 교류 ▲회원들의 목소리 경청 및 반영 ▲중앙회 및 부산시회에 대한 건의 사항과 정책 제안 등으로, 회원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부산시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과의 유대 강화를 이어가고, 실질적인 의견 반영과 정책 건의 활동으로 조직과 회원 간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제4회 서구 의료관광 축제 참여 및 신경전도·근전도 실무자 교육 개최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는 9월 12일(금)부터 13일(토)까지 송도오션파크에서 열린 제4회 서구 의료관광 축제에 참여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알렸다.



또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열린 제2회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 실무자 교육이 4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9월 13일 수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부산시회는 이번 축제와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회원들에게는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



인천의료기사연합회 정책연구단 제2차 회의 참석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채희영)가 8월 11일(월) 인천방사선사회관에서 인천의료기사연합회 정책연구단 제2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돌봄통합지원사업에 대한 의료기사 참여 및 시정 및 시의회 제안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채희영 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에 의료기사가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으나 인천시 조례에 의료기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이나 프로그램을 구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각 단체에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역할과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하도록 의견과 함께 인천의료기사연합회 정책연구단은 의료기사의 업무 현안과 돌봄통합지원법에 참여할 수 있는 제안서를 시정 및 시의회에 만들어 제출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사랑의 빵 나눔 봉사 실시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가 8월 30일(토) 인천직접식자혈액원 별관 2층 빵굽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회원과 가족 25명이 참여해 휴일에도 시간을 내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빵 만들기에 동참했다. 참여자들은 직접 반죽을 하고 빵을 구워 포장까지 마무리하며 정성을 다했으며, 부드러운 연유식 빵과 마들렌 등 총 5박스를 준비했다.

완성된 빵은 인천시회가 직접 섭외한 연수동 소재 영유아 장애인 거주시설 '동심원'에 전달됐다. 동심원 관계자는 “매년 아이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들에게 좋은 간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인천의료기사연합회와 함께 지역주민 건강돌봄 봉사 실시



인천광역시임상병리사회는 9월 6일(토) 동구 화도진 새마을금고에서 열린 '제1회 의료기사연합회 건강돌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에서 인천시회는 혈액형, 혈당, 혈압 검사를 실시하고 당뇨검사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며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봉사 현장에는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도 방문해 돌봄통합지원사업과 관련한 의료기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격려했다.



채희영 회장은 “인천의료기사연합회와 함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역주민 건강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돌봄통합지원법에 임상병리사가 필수 인력으로서 검사를 담당해야 국민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2025년 집행부 행정실무 워크숍 개최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는 9월 1일(월) 오후 7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2025년 집행부 행정실무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행정·재무·교육 등 각 부서의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7월 중앙회에서 진행된 실무 연수를 토대로 도회 업무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집행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하반기 종합학술대회와 보수교육 등 주요 도회 행사 운영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행정부 - 비즈메카 시스템 활용법 및 문서·비용 처리 절차 안내 ▲재무부 - 감사비·회의비 지급 기준과 교육비 정산 지침 ▲교육부 -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관련 실무 지침 전달 등이었으며, 부서별 필수 서류와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다뤘다.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실무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경험과 의견이 공유되며 부서 간 이해와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조대현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행정·재무·교육 실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함께 모색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보수교육 등 도회 행사에서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회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행정 지원과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



회원 단합대회로 플로깅 사회공헌활동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회장 정무상)는 지난 9월 7일(일) 제주 이호테우 해변 일대에서 플로깅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회원 단합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임상병리사를 알리고 지역사회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50여 명의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참여해 주변 해안가를 청소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참가자들은 ‘쓰리고(줍고, 걷고, 웃고) 임상병리사와 함께 플로깅 go~!’라는 주제로 플로깅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보였다.

제주도회는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



제3차 정기이사회 개최...거제·창원 간담회 성과 공유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회장 곽진영)는 지난 8월 23일(토) 오후 3시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오는 10월 25일(토)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마산대학교 창의관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추계 보수교육 준비였다. 경남도회는 회원들을 위한 수준 높은 보수교육을 마련하기 위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지난 5월 8일 거제시 간담회와 7월 16일 창원시 간담회 등 두 차례 지역 간담회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경남도회는 지역 내 실장들과 함께 협회와 도회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공유하며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공감의 자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 20일 울산 종합학술대회 참석 및 경남도회 워크숍 개최 ▲시·도회장 워크숍 보고 ▲부서별 사업 보고 ▲실무교육 운영 안건 및 토의 ▲2026년 예산안 준비 등도 함께 논의됐다.

초음파 실무교육 실시



경상남도임상병리사회는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30일(토)부터 9월 20일(토)까지 3주간 초음파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마산대학교 창의관 5층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심장 ▲경동맥 ▲뇌혈류 검사를 중심으로 이론 강의와 1:1 실습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론 강의는 강경화(양산부산대학교병원), 최유리(창원경상대학교병원)가 맡았으며, 실기 교육은 최슬림(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황정인(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진행했다.

교육에는 인제대학교, 김해대학교, 마산대학교 학생 20여 명과 경남도회 회원들이 참여해 직접 시연과 실습을 병행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3주차 마지막 날에는 교육 수료식이 열려 교육 과정을 마무리했다.

경남도회는 마산대학교와 MOU를 체결해 재학생과 재직자의 직무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초음파 실무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년 연속 이어져 오고 있다.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2025년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주 제: 임상수혈검사의 최신 지견
 장 소: 삼성서울병원 본관 B1 대강당 (강남구 일원로 81)
 일 시: 2025. 11. 01(토) 13:00~17:30
 일 정:
 특강 1. 카티(CAR-T)세포와 치료(가톨릭의대 제갈동욱 교수)
 구연 1. 2024-25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현황(인천적십자혈액원 김명연)
 구연 2.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Daratumumab 투여와 수혈 전 검사상의 고려 사항(세브란스병원 소유진)
 구연 3. PEG를 이용한 자가항체 흡착 방법(삼성서울병원 이진영)
 구연 4. MTP환자에서 이형수혈 후 자동화 장비(IH-1000)와 수기법에서의 ABO discrepancy (서울아산병원 김은기 & Bio-Rad 장형순)
 구연 5. 냉동 혈소판제 제조 경험(아주대학교병원 조현수)

※ 일정은 당일 사정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평점: 4시간 4평점 인정
2. 사전등록 기간: 2025. 10. 01(수) ~ 2025. 10. 27(월) 23:59분까지
 협회 홈페이지(www.kamt.or.kr) 보수교육 → 보수교육신청
3. 초록 및 포스터 접수 기간: 2025. 09. 22(월) ~ 2025. 10. 15(수)
 - 접수: 조광근 학술간사 (e-mail. ckk333@hanmail.net)
4. 사전등록 비용: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72,500원
 ※ 정회원: 협회 정관 제3장 제7조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2025년도 기준 2023, 2024, 2025년도 협회비 납부자)
 회원등급 준회원→정회원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후 결제요망 (협회비 납부 후 로그아웃 후 다시 로그인 하셔야 등급이 변경됩니다.)
5. 필독사항
 ▶ 명시된 사전 등록기간 외에 연장 등록은 없습니다.
 ▶ 등록만 하고 불참하시면 평점 이수가 불가 하오니 이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출결관리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시행합니다.
 ▶ 참가자는 입실과 퇴실 체크 모두 완료하셔야 평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6. 문의사항
 가. 학술간사: 조광근(아주대병원) ☎ 010-9476-9076, ckk333@hanmail.net
 나. 대표간사: 김용문(삼성서울병원) ☎ 010-8864-6465, vokvok39@hanmail.net
 다. 학술부회회장: 조현수(아주대병원) ☎ 010-8571-8003, ppo6656@hanmail.net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신속 진단검사 심포지엄 및 추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학회장 황유연)는 지난 8월 30일(토) 삼성서울병원 일원캠캠퍼스 B 동 9층 강의실에서 '2025년 미생물 진단 신속검사(POCT) 교육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생물 신속 진단검사'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총 120명의 참석자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프로그램은 ▲「미생물 감염 진단을 위한 신속 검사 필요성」을 시작으로 ▲Filmarray(비오메리) ▲BD MAX 시스템(백톤 디킨슨) ▲ID NOW(에보트) ▲IR biotyper(브르커)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강의와 실습이 이어져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학회는 오는 11월 1일(토) 중앙대학교병원 (흑석) 중앙관 4층 송봉홀에서 제36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신 미생물 검사 기술과 임상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다. 오전에는 학생포럼을 통해 다제내성세균 치료 방안과 신속 진단검사법, 항균제 내성 현황 등이 논의되며, 오후에는 '미생물 검사의 최신 지견'과 '일반 연제' 세션이 이어진다.

시간	주제	강사	장소
08:00-08:30	등록 및 등록금 수령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사무국	중앙관 4층 송봉홀
08:30-09:00	학생포럼: 다제내성세균 치료 방안과 신속 진단검사법	황유연 (학회장)	중앙관 4층 송봉홀
09:00-09:30	학생포럼: 항균제 내성 현황	김민준 (고려대 의과대학)	중앙관 4층 송봉홀
09:30-10:00	학생포럼: 미생물 검사 기술과 임상 적용 사례	김시현 (인제대 의과대학)	중앙관 4층 송봉홀
10:00-10:30	학생포럼: 일반 연제	김시현 (인제대 의과대학)	중앙관 4층 송봉홀
10:30-11:00	학생포럼: 일반 연제	김시현 (인제대 의과대학)	중앙관 4층 송봉홀
11:00-11:30	학생포럼: 일반 연제	김시현 (인제대 의과대학)	중앙관 4층 송봉홀
11:30-12:00	학생포럼: 일반 연제	김시현 (인제대 의과대학)	중앙관 4층 송봉홀
12:00-12:30	학생포럼: 일반 연제	김시현 (인제대 의과대학)	중앙관 4층 송봉홀
12:30-13:00	학생포럼: 일반 연제	김시현 (인제대 의과대학)	중앙관 4층 송봉홀
13:00-13:30	학생포럼: 일반 연제	김시현 (인제대 의과대학)	중앙관 4층 송봉홀
13:30-14:00	학생포럼: 일반 연제	김시현 (인제대 의과대학)	중앙관 4층 송봉홀
14:00-14:30	학생포럼: 일반 연제	김시현 (인제대 의과대학)	중앙관 4층 송봉홀
14:30-15:00	학생포럼: 일반 연제	김시현 (인제대 의과대학)	중앙관 4층 송봉홀
15:00-15:30	학생포럼: 일반 연제	김시현 (인제대 의과대학)	중앙관 4층 송봉홀
15:30-16:00	학생포럼: 일반 연제	김시현 (인제대 의과대학)	중앙관 4층 송봉홀
16:00-16:30	학생포럼: 일반 연제	김시현 (인제대 의과대학)	중앙관 4층 송봉홀
16:30-17:00	학생포럼: 일반 연제	김시현 (인제대 의과대학)	중앙관 4층 송봉홀
17:00-17:30	학생포럼: 일반 연제	김시현 (인제대 의과대학)	중앙관 4층 송봉홀

주요 강연으로는 ▲BIOFIRE FILMARAY SYSTEM을 이용한 신속 진단(이정은, 비오메리) ▲코리아 ▲폐렴 패널의 임상 적용 사례(이승순, 한림대 의과대학) ▲Gram stain 기초(김근주, 고려대 의과대학) ▲농·상처 배양 검사(황유연, 삼성서울병원) ▲분자진단 기반 감염병 진단 접근법(김시현, 인제대 의과대학) ▲MALDI-TOF MS를 이용한 Pseudomonas aeruginosa 검출 및 동정법(김근태, 문병성병원) 등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이무식 교수(건양대 보건복지대학원)의 특별 강연을 통해 감염병 대응 정책과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학회는 이번 심포지엄과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임상미생물 분야의 신속 진단 기술과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지식을 확산함으로써 전문 인력 역량 강화와 감염병 대응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감염안전관리임상병리사회



충북보건과학대학교와 시바이오헬스 융합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감염안전관리임상병리사회(회장 손재형)는 지난 9월 21일(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장 박용석)와 시바이오헬스융합 전문기술 석사 과정의 인재 양성과 감염안전관리 분야 연구·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2026학년도부터 신설되는 전문기술 석사학위 과정에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전문 인재를 배출하고, 나아가 신종감염병 출현 예방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임상병리사의 전문 역할 확대와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안전관리임상병리사회는 다년간 축적한 학술역량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구와 교육을 적극 지원해 임상병리사의 현장 중심 활동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AI 선도대학으로서 구축한 기반을 토대로 임상병리사가 AI 시대에 요구되는 감염안전관리와 융합형 전문 인력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손재형 회장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아 임상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교육과정을 대학과 함께 개설하게 되어 뜻깊다”며 “학교와 임상이 하나”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감염안전관리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시시대를 열어감으로써 임상병리사의 전문가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석 총장은 “이번 협약은 미래 보건 의료 분야를 선도할 AI 융합형 인재 양성의 출발점”이라며 “충북보건과학대가 AI 선도대학으로서 감염안전관리임상병리사회와 함께 교육 혁신과 연구 역량을 강화해 임상병리사를 포함한 융합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2025년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 주제: 자궁 및 난소 병리
- 강사:
 - 현미경 강의: 신준영 교수님 (국립암센터)
 - 학술 1: 윤정희 선생님 (국립암센터)
 - 학술 2: 지호룡 선생님 (서울아산병원)

장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일시: 2025년 10월 18일(토) 13:00~18:00

- 평점: 4시간 4평점 인정
- 사전등록기간: 2025년 9월 22일 ~ 2025년 10월 13일

사전등록비용: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72,500원
 ※현장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기타: 세포 & 육안전문임상병리사 보수 교육 진행 (별도 등록)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투어 진행 (학회 홈페이지 참조)

- 비고:
 - 사전등록기간 외에 연장등록은 불가
 - 출결관리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시행
 - 참석자는 입실과 퇴실 체크 모두 완료하셔야 평점 인정

문의: 학술문의: bicho@schmc.ac.kr

기타문의: heyheyhey78@naver.com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소식지 'HEPa'를 소개합니다!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소식지 HEPa는 2024년 9월 창간되어 연 2회 발행됩니다.

학회 소식지에는 교육 일정, 정책 안내, 회원 인터뷰 외에도 병리 진단 트렌드, 검사실 운영 노하우, 연구 동향 등 실무 중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HEPa 창간호 바로가기

VOL.01 | 2024.09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 창간호
2024.09 / Vol.01

HEPa : H&E stain and Pap stain의 뜻을 담았습니다.

2024년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춘계학술대회” 성황리에 마칩니다.



춘계학술대회 발표 사진



춘계학술대회 발표 사진

*** 면허 보수교육 평점 4점, 전문임상병리사 평점 4점 ⇒ 총 8점 획득 기회 ***

10월12일(토) 춘계학술대회 개최 예정 - GI tract, 현미경 강의, 육안검사, 면역분자검사 강의
조직, 세포, 육안전문임상병리사 무료 보수교육 강의

조직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12
22명의 조직전문임상병리사 양성교육 성료



세포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10
세포전문임상병리사 양성교육 인교식 거행



육안전문임상병리사위원회 08
제 6기 육안전문임상병리사 선발시험 현장



추계학술대회 16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예정



Digital Pathology 06
서울아산병원 - 세계 최대 규모 구축



현미경 교육장 04
협회 신관 4층 현미경 교육장 개설



발행일 : 2024년 9월 | 발행인 : 소선기 | 발행처 : 대한조직세포검사학회 | 메일 : heyheyhey78@naver.com
편집위원 : 김연희 김중석 김철 심미나 안종범 이권우 이신일 이종근 송현범 주준하 지호룡 최병일 | 디자인·인쇄 : 혜성디자인(02.469.0577)

[02811]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41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4층 FAX. 031.961.7939 www.kshc.or.kr

임상병리사 회원들의 도전과 발자취

국제 자격증 도전기: ASCPi 자격 취득 이야기

서울아산병원 양성식 회원

임상검사실에서 일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세계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을까?”

국제 인증(CAP) 심사를 받을 때마다 국제적 기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갈증이 생기곤 합니다. 저는 그 물음에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도전이 바로 ASCPi(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Pathology International)였습니다. ASCPi는 임상검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자격으로, 세계 어디서든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와도 같습니다.

저는 MLS(임상검사학 전문가), PBT(채혈 전문가) 자격을 취득했으며, 최근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업무를 맡게 되면서 분자생물학에 흥미가 생겨 MB(분자생물학 전문가) 자격까지 세 가지를 모두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독학으로 준비한 과정

사실 처음 결심했을 때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ASCPi 시험은 모두 영어로 출제되고, 범위도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관련 강의가 열리기도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워 독학을 결심했습니다. 교재를 중심으로 기초를 쌓고, 모르는 부분은 교수님께 질문하며 협회 강의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빈칸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 특히 MLS는 혈액학, 임상화학, 면역학, 미생물학 등 검사실 전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분량이 끝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 속에서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일은 조금 더’라며 작은 성취를 쌓아갔습니. MB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분자진단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 최신 내용 학습이 특히 중요했고, 광범위한 주제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 ‘특강이나 경험자의 조언이 있었다면 더 수월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부족함을 스스로 채워가며 극복했습니다.

합격의 순간

드디어 시험 날, 아침 일찍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Pearson VUE 시험센터로 향했습니다. 철저한 감독 아래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ASCPi 시험은 컴퓨터 적응형 시험(CAT, Computer Adaptive Testing) 방식으로 진행되며, 마지막에 ‘제출(Submit)’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합격 여부가 즉시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 몇 초가 그렇게 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MB 시험 때는 긴장한 나머지 확인조차 못 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마우스를 누르기도 힘들었고, 화면에 ‘Pass’라는 단어가 뜨는 순간 지난 몇 달의 노력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응시한 시험에서도 모두 한 번에 합격했고, 그 짜릿한 순간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취득한 3가지 자격 비교

1) MLS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임상검사학 전문가)
역할/핵심 역량: 검사실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문가로, 검사 전(Pre-analytic)부터 검사 후(Post-analytic)까지 품질과 정확성을 관리합니다.
시험 내용: 혈액학, 임상화학, 면역학, 미생물학, 혈액은행, 요검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느낀 점: 범위가 넓어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장기 계획이 필수입니다. 과목별 ‘핵심 원리 → 대표 질환/검사 → 해석’의 3단 구조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2) PBT (Phlebotomy Technician, 채혈 전문가)
시험 내용: 순환계, 검체 채취 및 처리, POCT, 실험실 운영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느낀 점: 절차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합격의 관건이었습니다. 환자 확인·의사소통, 감염관리, 표준주의, 채혈 장비와 절차, 튜브 순서와 혼합, 합병증 대처(실신·혈종 등), 시료 라벨링·보관·운송 등이 주요 출제 영역이었습니다.

3) MB (Molecular Biology, 분자생물학 전문가)
시험 내용: 분자진단의 원리와 유전·감염·종양 관련 분자표적의 검출·해석을 포함합니다.

느낀 점: 범위가 넓어 주제별 계획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분자생물 기초, PCR, EP, 시퀀싱, NGS 등 큰 주제를 나누어 공부했습니다. 그래프와 증폭곡선, 용어를 시각 자료로 정리하면 마지막 복습에 도움이 됩니다.

얻은 것 - 자격증 그 이상의 가치

이번 도전을 통해 단순한 자격 취득을 넘어 전문성 재정립과 자신감이라는 두 가지 큰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국제 기준의 시각에서 임상검사를 바라보며, 우리 검사실의 위치와 방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ASCPi는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얻는 성장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도 해볼까?’ 고민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그 끝에서 만나는 기쁨은 생각보다 훨씬 큼니다.” 앞으로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우리 검사실의 전문성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이 글이 도전을 준비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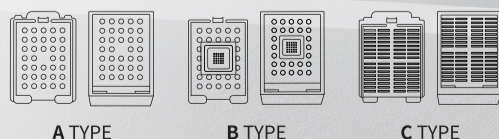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MB 준비 과정에서 NGS 학습을 지도해 주신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오홍범 교수님, 그리고 분자생물학 전반에 조언을 주신 신한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조규봉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INT STATION

CASSETTE MATE

- ONE BY ONE에 적합한 콤팩트한 사이즈 : 190*305*330mm (호퍼 포함 높이 460mm)
- 화학물질이나 스크래치에 강함
- 다양한 언어와 특수문자, 1D, 2D 바코드 인쇄 가능
- 사용자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 설정

EMBEDDING CASSETTE



SLIDE PRINTER

ESPO II

- 가볍고 콤팩트한 사이즈 : 120*240*247mm
- 세 가지의 배출 모드
- 듀얼 터치스크린
- 바코드 스캐너 내장
- 최대 200장 출력 가능
- 전용 슬라이드 카트리지로 편의성 제공



임상병리사 회원들의 도전과 발자취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수면학회(World Sleep Congress) 2025 참석 후기

삼성서울병원 수면센터



김정태 회원(40510)

이번 학회는 저에게 기술적으로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AI 수면 분석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게 느껴졌습니다. 숨소리만으로 무호흡증이나 산소포화도 변화를 감지하는 기술은 제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에이슬립이나 삼성 같은 기업 부스에서 데모를 보며 우리가 가진 기술을 어떻게 더 고도화시킬 수 있고, 수면다원검사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도시의 느낌도 학회 경험에 한몫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도시 풍경이 기술의 발전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잘 정돈된 책장처럼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논리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학회이기에 더욱 첨단 기술에 대한 발표들이 빛을 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수면 데이터가 어떻게 의학적 진단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포지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들이 임상 현장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을 보며, 우리나라 기술도 ‘편리한 앱’을 넘어 ‘의료 솔루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수면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건강 피드백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환자의 수면의 질을 더욱 높이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과의 공동 연구들이 점점 늘어나 수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슬립테크’가 더 이상 단순한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 수준을 넘어,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보조하는 의료기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의 고가 수면다원검사(PSG)를 보완하고, 가정에서 장기적으로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들은 수면 의료의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이번 학회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병원에서 수많은 수면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의 수면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단과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두수 회원(40209)

저는 이번 학회에서 ‘잠’이라는 경험을 어떻게 더 편안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에 집중하며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기술의 정확도를 강조했지만, 저는 ‘사용자가 그 기술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더 큰 관심이 갔습니다.

학회가 열린 싱가포르에 도착한 첫날, 도시의 화려한 야경은 제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의 아름다운 조명과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의 모습은 기술이 사용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때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기술이 도시의 밤을 밝히는 빛처럼, 수면 솔루션도 사용자의 일상을 부드럽게 감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제 관심을 끈 부스는 삼성전자의 ‘삼성 헬스’ 앱이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깔끔하고 직관적이었으며, 복잡할 수 있는 수면 데이터를 사용

자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방식은 환자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대건설과 협업한 스마트 홈 시스템 ‘헤이슬립’을 보며 수면 환경이 사용자 경험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조명, 온도, 공기질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시스템은 기술이 사람의 감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이번 학회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수면 솔루션’이 더 이상 딱딱하고 불편한 의료기기가 아니라, 따뜻하고 친근한 생활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회에서 본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병원뿐 아니라 국내 수면다원검사를 진행하는 동료들에게도 딱딱한 숫자·문자 중심의 결과값 대신, 환자의 감성과 경험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검사실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스마트 기기는 점점 발전하겠지만, 좋은 치료는 결국 앞선 기술과 검사자 그리고 환자의 경험이 완성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고 믿습니다.

김태호 회원(42448)

이번 학회는 단순히 기술을 보는 것을 넘어 ‘수면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기회였습니다. 전 세계의 의료 전문가들과 기술 기업, 그리고 투자자들이 모두 ‘수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슬립테크’라는 용어가 더 이상 스타트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수면 헬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혁신과 비즈니스의 허브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학회 또한 그러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고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모습에서 싱가포르의 역동성을 느꼈습니다. 이번 학회는 단순한 학술 발표장이 아니라, 글로벌 수면 시장의 미래를 논의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회의장 같았습니다.

수면무호흡증 진단 보조 기기나 인지행동치료(CBT-I) 앱 같은 디지털 수면 치료 어플이 각광받는 것을 보며, AI라는 시대의 흐름이 수면 의료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수면 검사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수면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기관과 테크 기업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면 질환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협업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에이슬립,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여러 파트너사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듯이, 수면 시장은 한 기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기술 기업, 의료기관, 제약회사, 건설사 등 다양한 분야가 협력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수면 의료산업에서도 이러한 협력이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 수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의료 규제 및 취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임상병리사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가 회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접수기한 2025년 10월 24일(금) 18:00까지 전송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 성명, 면허번호, 배송 주소

♥ 제512호 당첨자

이번호 가장 좋았던 기사

생리학적 검사영역 업무 확대방안에 대하여

■ 김나은 회원 / 면허번호 : 74775

이번 2월에 졸업하여, 벌써 7개월 차 진단검사실 사원입니다.

임상병리학과 재학 중,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일부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지도하에 EKG를 시행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를 보며 “남의 가슴 그만 보고 싶다”, “임상병리사보다 간호조무사 업무가 더 나은데 학교를 왜 가냐”는 등의 막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졸업 후 임상에 나와 병원 선생님들과 친해지면서, 일부 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채혈이나 CBC 같은 검사도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의료기사 면허체계 보호를 위한 의견 제출에도 서명했고, 함께 근무하는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께도 적극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재학 시절, 혈액학 과목이 너무 어려워 교수님께 “외우기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계 돌리는 건 초등학생도 일주일만 가르치면 다 할 수 있어. 결과를 해석할 줄 알고, 수치의 증감에 대한 임상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전문가야.” 이 말씀은 지금 까지도 제 마음에 크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 면허를 취득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저는 초음파든 EKG든 우리의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리학을 전공하여 심장의 기능을 배우고, 그 원리를 이해한 우리는 초음파와 EKG 검사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입니다.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나 임상병리사의 면허와 관련된 일이라면, 임상병리사로서 앞장서서 동참하고 싶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SNS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및 SNS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카카오톡채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인스타그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페이스북 페이지



회원소식을 전달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kamtreporter@daum.net]로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보내주시면
병리협보에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9월 언론보도



2025.09.10

후생신보

AI시대 임상병리사 역할·현장검사 기반 통합돌봄 확대 방안 모색

헬스경향

AI부터 통합돌봄까지...급변하는 시대 속 임상병리사의 역할은

2025.09.11

의학신문

임상병리사협회, 'AI시대 검사 전문가 임상병리사의 역할 국회토론회' 개최

2025.09.12

헬스경향

임상병리사 중심 '현장검사(POCT)'...통합돌봄 혁신 열쇠

세이프타임즈

이광우 임상병리사회장 국회 토론회는 방문검사제 제도화 초석

매경헬스

검사는 빨리, 책임은 확실히... AI 돌봄통합, 임상병리사 법제화 급선무

2025.09.16

후생신보

AI시대 POCT 확산, '임상병리사 중심 안전 책임 모형' 필요

의학신문

"임상병리사 방문검사 법제화 및 통합돌봄 확대 한목소리"

세이프타임즈

임상병리사협회 'POCT 돌봄통합' 토론회 성료

2025.09.17

데일리메디

이달 20~21일 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국제컨퍼런스

의학신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63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세이프타임즈

임상병리사협회 '2025 KAMT 울산' 오는 20일 연다

매경헬스

'2025 KAMT 울산' 20~21일 개최...임상병리사 3000명 집결

2025.09.18

후생신보

임상병리사 미래 역할·제도적 기반 모색

의학신문

임상병리사협회 경기도회, '혈당체크업! 경로당 건강업! 프로젝트' 실시

세이프타임즈

임상병리사협회 경기도회, 장안구보건소와 어르신 건강관리 맞손

2025.09.20

세이프타임즈

보건의료의 최전방 임상병리사, 미래비전을 말하다

2025.09.22

세이프타임즈

[포토뉴스]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2025.09.23

세이프타임즈

임상병리사협회, 국회 입법박람회서 '지역불평등 없는 POCT' 제안

2025.09.24

의학신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참가

후생신보

현장검사 가치와 미래 입법 과제 공유

헬스경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참가

2025.09.26

매경헬스

진단의 중심은 우리 임상병리사 3000명, 울산에 모였다

데일리메디

정확한 진단 임상병리사 3000명 한자리에

후생신보

임상병리사협회, 국제교류·학술발전으로 글로벌 위상 제고 최선

의학신문

"임상병리사의 미래, 진단의 중심으로"

기사를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개 시도회 SNS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팔로잉과 친구추가 해주세요!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팔로잉 해주세요!

부산시회, 울산시회, 광주시회, 인천시회, 경기도회, 강원도회, 충청남도회, 전북도회, 경북도회, 경남도회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친구추가 해주세요!

서울시회, 대구시회, 광주시회, 경기도회, 강원도회, 충북도회, 경남도회